

이에 대해서는 전택부의 『한국 기독교 청년회 운동사』⁴⁾에 설명되어 있을 뿐, 別般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이 事件은 日本改新教會의 한국침투에 대한 본보기라고 생각되어 한번 살펴 보기로 하였다.

II. 日本 改新教會의 浸透와 韓國人의 對應

維新會 事件이 일어나기 앞서 日本의 改新教會가 언제, 어떻게 한국에 침투하였던가를 보는 것이 좋을 성 싶다. 日本 改新教會가 한국에 傳道의 손을 뻗치기는 1903 년이었다. 즉, 日本基督教會는 그 해 10월에 貴山幸次郎을, 組合教會는 11월에 宮川經輝를 한국에 派遣하여 傳道의 可能性을 살피도록 하였다. 실제로 이들은 來韓하여 實情을 살핀 뒤 서로 協議하여, 日本基督教會는 釜山을 中心으로, 組合教會는 서울을 中心으로 傳道기로 決定하였다.

이해 傳道師 派遣을 서둘러 日本基督教會는 다음 해, 즉 1904년 2월 松元茂雄을 釜山에 派遣함에 이르렀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監理教會에서도 4월에 木原外七을 서울에 派遣하였고, 이를 뒤쫓아 組合教會 또한 6월에 劍持省吾를 서울에 派遣하여 各其 教會를 세웠다. 그것은 露日戰爭 勃發直後였다. 처음에는 在韓 日本人의 教化를 目標로 삼고 있었으나, 얼마 뒤로부터 한국인을 위한 傳道에 힘쓰면서 全國에 손을 뻗쳤다.⁵⁾

당시 日本 改新教信者들이 한결같이 믿고 있었던 것은 日本이 淸과 戰爭을 하고, 現在 또한 러시아와 戰爭을 하면서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은 한국의 獨立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政府의 선전에 보조를 맞추고 있었던 셈이었다. 日本基督教會에서 發刊하던 雜誌 『福音新報』 508號(1905년 <明治 38> 3월 23일 刊)에 게재된 坂本直寬이란 사람이 쓴 「韓國과 其拯救」라는 論說을 보면,

4) 正音社, 1978. pp. 171~175.

5) 飯沼二郎·韓哲曦 共著 『日本帝國主義下の 朝鮮傳道』, p. 18; *The Korea Review*, Vol. 4, 1904, News Calender.

朝鮮의 獨立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世人이 論한 바로서 我邦이 이미 征濟의 師를 일으키고 지금 다시 大兵을 들어 露國과 交戰하고 있는데 畢竟 其主目的의 重要한 하나의 理由는 同國의 獨立을 扶植하는데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我邦은 朝鮮을 위해 이미 偉大한 犧牲을 하였다. 吾人은 將來 이를 위해 더욱 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를 救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이를 救할 수 있는 길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국을 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吾人이 自然히 到達해야 될 重要問題가 될 것이다. 훌륭한 醫師가 患者를 治療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먼저 其病源을 살피고, 그리하여 그에게 適當한 藥을 投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手術을 해야만 한다. 朝鮮國民의 衰頹는 오늘 날에 이르러 其極度에 達하고 있다. 그러나 其病根이 一朝一夕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멀리 또한 隱微에 胚胎하여 왔음을 볼 수 있다.……(下略)⁶⁾

고, 그것을 밝히고 있다.

露日戰爭이 帝國主義戰爭이었음은 다 아는 事實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日本 改新教 信者들은 이 戰爭을 찬양하여 마지 않았던 것이었다. 組合教會에서 刊行하던 雜誌『基督教世界』1085號(1904년 6월 16일 刊)에는 劍持省吾라는 사람이 宣教師로 한국에 赴任하기 앞서 行한 演說을 게재하고 있는데, 그 內容을 보면,

我國은 東洋永遠의 平和를 위해 正義의 軍을 일으킨 以來 오늘에 이르러 連戰連捷, 韓國의 保全은 오로지 我國 經營의 힘에 依賴코자 하고 있다. 此際 吾人이 外國傳道의 必要를 말함은 어찌 그 까닭이 없겠는가? (下略)⁷⁾

라 하여, 露日戰爭을 義戰이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帝國主義의 앞잡이로 한국에 赴任함을 부끄러워 해야 할 이들이 한 술 더 떠 그 戰爭을 義戰이라고 말하였던 것이었다.

前述한 바대로, 日本 基督教會는 秋元茂雄을 釜山에 派遣하여 傳道事業을 시작하였으나, 곧 秋元이 辭任함으로써 石原保太郎을 다시 派遣하였다. 그러나 石原마저 얼마 뒤 歸國함으로써 所期의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6) 小川圭治·池明觀 共編 『日韓교리스트敎關係史』(新敎出版社, 東京, 1984), pp. 51~53.

7) 同上書 pp. 140~141.

停頓狀態에 빠지게 되었다.⁸⁾

이와는 달리 監理教會와 組合教會는 대단한 進展을 보였다. 우선 監理教會는 처음 派遣한 木原外七의 活動으로 1906년(明治 39) 5월 村田重次라는 豫備役 陸軍 步兵中尉를 平壤에, 山下篤志라는 銀行員 出身을 仁川에 各其 傳道師로 派遣하였다. 그리고 뒤에 村田으로 하여금 鎮南浦에도 出張·傳道케 하였다.⁹⁾

「해리스」(M. C. Harris)牧師가 1904년 韓日兩國의 監督으로 任命되었던 것도 監理敎의 한국進出에 큰 役割을 하였다. 그는 日本政府로부터 勳章을 받을 만큼 親日分子였던 것이므로, 釜山駐在 미국 北長老敎 宣敎師 「스미드」(Walter Smith) 牧師가 1908년 1월 30일 字로 本國 宣敎本部 「브라운」(Arthur J. Brown)總務에게 보낸 報告에서,

해리스監督은 기독교회의 감독이라기보다 일본정부의 앞잡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일 실정이고, 그의 지도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이며, 不誠實한 追從者들이라는 定評을 이미 받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런 인정을 받을 것이다.¹⁰⁾

라고 쓸 정도였다. 그러기 때문에 「해리스」는 監理教會에서 刊行하던 雜誌 『護敎』 900號(1908년 10월 24일 15일 刊)에, 「日韓兩國에 關한 誤解를 辯明함」¹¹⁾이라는 글과 964號(1910년 1월 15일 刊)에, 「해리스監督의 對韓意見」¹²⁾이라는 面談 記事를 통해 自己의 立場을 밝히고 있다. 그 內容의 骨子인즉, 한국인은 日本政策에 好意를 가져야 될 것이고 그 政策에 順應해야만 새 한국이 誕生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터무니 없는 말을 지껌하였던 것이었다. 어떻든 그의 親日的 行動은 日本 監理教會의 한국進출을 도왔다.

한편 組合教會에서 서울에 派遣하였던 劍持省吾는 傳道함에 있어서 다

8) 同上書 pp. 51, 83~84.

9) 同上書 p. 85.

10) 白樂濤, 『韓國改新敎史』(延世大學校 出版部, 1973), p. 435.

11) 小川圭治·池明觀 共編, 前掲書, pp. 383~384.

12) 同上書 pp. 385~386.

른 敎派보다 有利함을 發見하였다. 그것은 組合敎會의 信者였던 渡瀨常吉라는 사람이 이미 서울에 와서 그 基盤을 構築하였기 때문이었다. 渡瀨는 1899년 以來 京城學堂의 校長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弟子를 양성하였다. 이 學校는 一種의 日語學校였던 것이므로,¹³⁾ 당시 日語를 배우려던 한국 젊은이들이 多數 여기서 修學을 하였다. 그러므로 劍持는 그 基盤을 利用하였던 것이었다.¹⁴⁾

渡瀨는 1907년에 이르러 8년간 근무하였던 京城學堂長을 辭任하고 本國으로 돌아가 神戶敎會의 牧師가 되었다. 다음 해, 즉 1908년 3월 傳道 문제로 서울을 訪問하였을 때 한국인 弟子들이 그를 위해 歡迎會를 개최하였는데, 『大韓每日申報』 1908년 3월 15일 字 廣告를 보면,

本月十八日 舊京城學堂長 渡瀨常吉氏가 渡韓하옵기 該氏 歡迎事로 相議호 事
이 有호옵기 茲에 仰佈호오니 京城學堂 卒業生及學產은 本月 拾五日(日曜)下午四
時에 來臨于左記處호심을 爲要.

南門內 尙洞青年學院 內

舊京城學堂 同窓會

發起人 柳一宣 等

이라고 보인다. 이처럼 환영을 받을 만큼 渡瀨는 한국안에 기반을 갖고 있었다. 그는 한국 傳道에 관심이 많아 京城學堂長을 辭任하고 日本에 돌아간 直後 組合敎會에서 刊行하던 『基督教世界』 1250號(1907년 8월 15일 刊)에, 「韓國傳道論」이란 글을 投稿하여 日本 젊은이들의 한국進出을 권장한 바 있었다.¹⁵⁾

1907년 海牙密使事件이 터지자 組合敎會는 外國 宣敎師들이 한국의 愚民과 暴徒를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事件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이 機會에 各處에 日本人 宣敎師의 「스테이션」(station)을 설치하여 外國

13) 이 學校는 大日本海外敎育會에서 운영한 것처럼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日本 外務省의 財政의 支援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崔竣, 『韓國新聞史論攷』(一潮閣, 1976), pp. 222~223 參照.

14) 小川圭治·池明觀 共編, 前掲書, p. 139, 297.

15) 同上書 pp. 144~147.

宣教師에 對抗하는 한편 앞으로의 發展을 도모해야 된다고까지 主張하였다.¹⁶⁾ 同時에 「滿韓傳道會社」의 설치도 主張했다.¹⁷⁾

이처럼 日本 改新教會가 帝國主義의 앞잡이로 한국에 進出하였을 때 한국의 改新教會는 어떠하였던가? 사실 한국 改新教會는 淸日戰爭(1894~95)前에는 보잘것 없었으나 戰爭 위에는 크게 勢力을 擴張시키고 있었다. 一般 庶民뿐만 아니라 有識層, 이를테면 兩班, 儒生 중에도 入敎하는 사람이 나타나 그 數는 날로 늘어났다.

이렇게 된 때에는 西洋諸國의 文明이 卓越함을 認識하게 되고, 그 文明의 바탕에는 기독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독립신문』 1897년(建陽 2) 1월 26일 字論說에,

(上略) 크리스도의 교를 착실히 행는 나라들은 지금 세계 제일 강하고 제일 문명하고 제일 기화가 되어 하나님의 큰 복음을 넘고 살더라.

고 있음은 이를 말해준다 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기독교敎育이 광범위하게 展開되었다. 그것은 初等敎育에서부터 高等敎育, 特殊敎育에까지 걸치는 것이었다. 敎育內容은 自然科學 系統의 科目과 아울러 國語, 國史, 地理 그리고 唱歌와 體操 등이 中心을 이루었다. 이런 科目을 통해 愛國思想이 鼓吹되었다.

青年운동 또는 크게 展開되었으니, 1901년 YMCA 국제위원회에서 派送된 「질레트」(Philip L. Gillett, 吉禮泰)의 活動으로 1903년 10월 기독교青年會가 正式으로 조직되어 憲章을 採擇함에 이르렀다. 青年會에서는 各種 講演과 聖經研究, 그리고 體育을 크게 장려하였던 것이므로 많은 青年들이 모여 들었다. 青年會의 正式 이름은 皇城基督教青年會였다. 1897년 10월 大韓帝國이 수립되면서 서울을 漢城代身 皇城으로 불렀는데, 青年會는 그것을 닦던 것이었다.¹⁸⁾ 獨立의 意志를 나타내는 名稱이었다.

16) 同上書 pp. 147~149. 仁川에 駐在하던 久木辰次郎이 「韓國傳道私見」이란 글을 投稿하면서 이렇게 主張하였던 것이다.

17) 同上書 pp. 150~151.

18)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운동사』(正音社, 1978), pp. 29~69.

이 때 信者의 數만이 增加했던 것은 아니었다. 信仰復興운동 또한 크게 일어났던 것이었다. 남의 信仰을 받아들이는 段階를 넘어서 自己의 信仰으로 만듦과 同時에 內面的으로 深化시키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곧 百萬救靈운동으로 發展되었다. 百萬名의 信者를 獲得하려는 것이었다. 당시 教會에 籍을 둔 正規敎人의 數는 8,000 내지 10,000 名 정도였고 準敎人과 來道者까지 합쳐 20 萬名도 채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와같은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은 확실히 冒險에 屬하였으나 그만큼 기독교인의 熱意가 대단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¹⁹⁾

한국 改新教會가 이와같이 盛況을 이루고 愛國思想을 鼓吹하고 있는 것을 보자 日本政府는 이를 阻止해 보려고 安간힘을 썼다. 특히, 1905년 11월 保護條約을 체결한 뒤로는 露骨的으로 彈壓을 加하는 한편으로 한국에 進出한 日本教會를 적극 支援하였다.

前述한바와 같이, 1904년에 日本基督敎會·監理敎會·組合敎會가 한국에 進出하고 있었는데, 日本政府는 1909년 다시 東洋傳道館, 東洋基督敎協會라는 團體를 設立하여 한국에 進出시켰다. 이 事實을 알기된 『大韓每日申報』의 主筆들은 論說로서 그 奸計를 猛烈히 비난하였다. 이를보면, 1909년 9월 14일 字에 「所謂東洋傳道館」이란 題目으로,

(上略) 此館 設立의 內容을 聞하건대 是가 日人의 政策에서 出來호 者라. 其意에 以爲호더 韓國에 耶蘇敎가 日로 擴張호며 敎徒가 日로 增加되호더 萬壹 此를 放任호면 必也 彼等이 敎主前에 進호야 盲者는 視를 求호여 聾者는 聽을 求호며 苦痛者는 釋放을 求호며 地獄을 破호고 天國을 建호야호는 者 心多호리니 是가 可憂호며 是가 又懼라. 於是乎 東洋傳道館을 設호야 韓國同胞의 愛國精神을 撲滅호며 第貳는 韓國同胞의 自由思想을 摧壞호야 아무조록 現狀에 安호며 卑屈에 酣호게 호라호미니 險哉라. 此館이여 主의 言을 誦호며 主의 名을 借호야 其魔術을 行호는도다. 彼가 如此히 其魔術을 謂호서 沒廉無恥로 幾名 韓人을 雇호야 厚俸을 給호고 日日로 唱言호기호 敎를 獲호호는 者는 此館으로 來호미 可호다 호고 毅然히 西洋人의 宣敎堂과 對立호앗도다. ……(下略)

19) 白樂濟, 「基督敎의 展開」, 『한국사』 20 (國史編纂委員會, 1974) 所收.

라고 하였으며, 同년 10월 12일 字에 「東亞基督教協會」라는 題目으로,

東洋傳道館(又謂 福音會)이 漢城에 派送 設立된은 本報에 累揭한바이나와 今에 更히 日本 東京에서 東亞基督教協會 設立하는 報道를 接한디 又 壹驚을 可喫할 비로다.……(中略) 且彼輩가 如何한 方法으로 하던지 韓國教會內 有志人士를 此 中으로 驅入하랴야 壹邊으로 趣旨書를 頒하며 壹邊으로 遊說者를 派하여 各處로 行하면서 人을 誘하고 甚或冒錄하야 該會中에 入케 하나니……(中略) 其趣旨書에 云하바 朝鮮의 基督教가 亦 壹大問題라함이 何謂오. 基督教의 未盛함을 憂함인가. 已盛함을 憂함인가. 蓋未盛·已盛함을 勿問하고 是를 韓國의 基督教가 되지안코 日本의 基督教가 되게 하랴함이로다. 韓國의 基督教어 果然 彼の 計圖하느바와 如히 日本의 基督教가 되랴는가. 抑不然한가. 願敎中諸公은 晝夜로 此問題를 研究출지어다.

라고 糾彈하였다. 同時에 韓國 基督教人에게도 覺醒을 促求하였다. 그러나 東洋傳道館이나 東洋基督教協會는 그 뒤에도 계속 한국信者들에게 恐喝을 하고, 甘言利說로 誘引함으로서 紛糾가 助長되었다.²⁰⁾

日本이 노리고 있던 것은 한국인 教會를 日本人 教會에 예속시키는 것이었다.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 한국인들이 反對하였지만 在韓 外國 宣教師들도 猛烈히 反對하였다. 1906년 두번 째로 한국을 訪問하였던 英國의 日刊紙 『런던 데일리 뉴스』(London Daily News)의 特派員 「맥켄지」(F.A. McKenzie)가 이를 지적하여,

일본인 들은 한국 교회를 일본 교회의 산하에 두어 日本化하고 同化政策의 도구로 쓰려고 매우 노력하였다. 선교사들은 이에 대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하였다.……(下略)²¹⁾

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日本政府는 在韓 外國 宣教師를 몹시 증오하였다. 日本의 統監

20) 이에 대해서는 『大韓每日申報』 1910년 1월 16일 字 論說 「基督教同胞의 警醒 呼바」와 同년 7월 15일 字 論說 「中央福音傳道館에 對하야」를 참조.

21) F.A. McKenzie, *Korea's Fight for Freedom* (Fleming H. Revell Company, Old Tappan, New Jersey, 1920) p. 212; 拙譯, 『韓國의 獨立運動』 (一潮閣, 1969) p. 151.

政治를 돕지 않을 뿐더러 뒤에서 한국인을 선동하여 反對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大韓每日申報』의 主筆들은 宣教師들에게 절대로 動搖하지 말라고 忠告하였다. 1905년 5월 12일 字「韓國內 美國宣教師의 同題(續)」라는 論說을 보면,

(上略) 又 彼가 日本 基督教徒들이 冒險의 態度로 韓國에 渡來하야 多大히 保護政治에 盡力함을 極口贊美하얏스니 彼の 獎勵心이 實로 極度에 達하얏도다. 壹言으로 道破할진더 彼가 韓國 宗教界의 勢力을 自家手中에 駈入하고 外國 宣教師를 驅逐하야 他國의 宗教勢力을 壹切 撲滅코즈 함이로다. 嗚乎라, 美國宣教師여 十分 注意할지이다. 嗚乎라, 韓國信教者여 十分 警醒할지이다. 然이나 此等 韓國 同胞의 反動力을 唱起하는 壹良師라. 韓國同胞가 此에 戒懼하야 此에 奮發하야 着着 進行하면 惟我 過去·未來 億兆蒼生의 罪惡을 救援하시는 教主 예수그리스도께서 畢竟 大慈大悲의 手로 文明의 光澤을 下賜하실지니라.

고 하여, 日本이 韓國의 宗教界를 手中에 넣어 撲滅하려고 하니 十分 注意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日本의 奸計에 말려들어 앞잡이로 轉身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無識한 人들이 多數 買收되었다. 그러므로 뜻 있는 人들은 이들에게 각성토록 注意를 주었던 것이니, 다음과 같이 『大韓每日申報』의 1910년 4월 8일 字 論說 「奇怪한 宗教界」에서 이를 잘 說明해 주고 있다. 즉,

挽近 韓人이 漸漸 螟蛉界로 化去하는 者 不少하야 或 政治的으로 化去하야 或 經濟的으로 化去하야 或은 姓名을 變하야 野田, 山口가 되며, 或은 裝飾을 改하야 日服·日履을 着하야 大韓臣民이 日感을 告하니 實로 志士의 長歎을 不禁할바 어니와 尤一可怪可悶한 事가 有하니 卽 宗教界의 變化가 是라. 蓋他人을 心理的으로 駈來하야 自家同化 範圍內에 引入함은 宗教가 彼政治 或經濟 等보다 強大한 勢力이 有하야 又韓人은 元來 其迷信心이 頗多한 國民이라. 此를 誘導하하면 方便上 宗教事業이 他事業보다 優勝함이 有하야, 又韓國에 他方面 宗教力이 方盛하는 時代라. 此를 競爭하라면 境遇上 宗教政策이 他政策과 進함이 可할서 於是乎 彼邊人이 着着히 宗教界의 飛躍을 圖하야 形形色色의 宗教旗를 四面에 羅立하고 左로 收하야 右로 攬하니……(中略) 同胞는 自立心이 有한 人民이라. 如干의 戲

誘가 었지 其勢를 張하며 同胞는 愛國心이 有한 人民이라. 如干의 試驗이 었지 其力을 肆하리만은 다만 同胞의 警醒을 催하야 效에 一한노라.

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日本에 유학갔다가 買收되어 故國에 돌아와 날뛰는 者도 있었다. 그 數는 적었으나 駭怪한 말을 퍼뜨리고 다니기 때문에 『大韓每日申報』의 主筆들은 또한 1909년 4월 21일 字에 「宗教界에 妖物」이란 題目으로,

吁라, 宗教界에 妖物이 出았도다. 嗚乎라, 宗教界가 妖物이 橫行하노도다. 余는 聞하건더 宗教는 世를 教하노대 彼는 世를 滅코 ぞ하며 信者는 罪를 贖하노던 彼는 罪를 浸코 ぞ하니 彼가 었지 其怪妄한가. 嗚乎라, 彼旗妖物이 어니 었지 怪妄치 아니 하리오. ……(中略) 此妖物이 是誰오. 曰 所謂韓人, 所謂基督教信者, 所謂日本京聖書公院 修業者 某某 兩三人이니라. 彼輩가 外國에 往하야 多年 研究한 結果로 近日 歸國하야 公衆에게 講道하야 曰 耶蘇教 教會에서 學校를 設立 할과 耶蘇教 信者가 學校에 工夫함은 大不可하야 偶像을 崇拜함과 壹般이라. 장차 地獄에 入하니니 하야 妄談悖說로 信者의 耳目을 蠱惑케 하노다 하니 嗚乎라. ……(下略)

고 있드시, 기독교 教會에서 學校를 설립하거나 信者가 그 學校에 들어가 공부하면 偶像을 崇拜하는 것과 같아서 將次 地獄에 들어갈 것이라고 東京聖書公院에서 修學한 몇 사람이 떠들어 대고 있으니 슬프다고 하면서 그들을 꾸짖었던 것이었다.

日本의 교란作戰으로 한국의 改新教會는 混亂을 免치 못하였다. 西洋 宣敎部와 관계를 끊고 獨自의 敎會를 운영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나타나났다. 大韓耶蘇自由會는 그 중의 하나였다. 『大韓每日申報』 1910년 5월 6일(음력 3월 28일) 字 廣告에 依하면 崔重珍이란 牧師의 이름으로 越旨書를 公布하였는데, 그 一部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大韓 耶蘇教 自由會 越旨書 廣告

全北 泰仁郡 水溪 寓生 大韓 耶蘇教 長老會 牧師 崔重珍은 去年 至月 爲始하야 敎會를 自由로 運動而 創開하코 緣由를 全國內敎會中과 一般同胞壓下에 仰告하오 나이다. ……(中略) 今年七月 爲始하야 神學部를 泰仁에다 設立하고 神學徒를 養

成야 十年內로 全國 三百六十郡에 自由牧師 一人式 派送호즈 함이라. 今此運動 이 西洋宣教師를 排斥함이 아니오 我韓 長老會 規模를 是非함이 아니라……(中略) 이 無自由호 同胞를 道德上에서나 自由로 學主愛主호야 天國樂境이 共躋호즈 함이 옮기시다……(下略)

라 하여, 教會를 自由롭게 운영하겠다는 것이었다. 위의 廣告를 보면 西洋宣教師를 排斥하는 것도 아니고 長老會 規模(則)도 排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實은 모두 排斥하겠다는 뜻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었다. 分明히 이 自由會는 既成 改新教會에 대한 挑戰이었다. 勿論 이 自由會를 支持하는 信者는 적었으나 이런 教會가 出現하였다는 것은 한국 改新教會의 分裂을 劃策하고 있던 日本으로서는 快哉를 불러 마땅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合邦直後 總督府가 이 自由會를 적극 後援하여 平安道까지 進出시켰던 것이었다.²²⁾

Ⅲ. 維新會事件

1910년 8월 合邦으로 韓國은 日本의 植民地로 轉落하였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平等하고 불우한 이웃을 사랑해야 될 日本 改新敎信者들은 合邦을 찬양하고 政府의 한국인 同化政策을 적극 支持하였다.

그 한 두가지의 예를 든다면, 監理教會에 있어서는 柳原浪夫라는 사람이 『護敎』 1,000號 (1910년 9월 24일 刊)에 「新帝國民과 基督者」란 論文을 게재하면서,

大和(日本)風이 強하게 불어 鷄林八道の 草木을 흔들고 日章旗 높이 올려져 千二百萬의 生靈 我帝威에 服從함에 이르렀다. 朝鮮 卽 歷史的 緣故있는 別稱이 불려진 韓國의 合併에 대해서는 世界의 列國이 그 當然함을 認定하였다. 이렇게 해서 千數百年의 歷史를 가진 國家는 今後 日本帝國史의 페이지 속에 記入하게 되었다. 이미 國際問題, 政治問題는 大略 落着되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新國民이 撫育·啓導하여 참다운 平安, 幸福을 享有케 할 수 있을가의 問題에 들어 갔

22) 『每日申報』 1910년 9월 3일 字 雜報.

다. ……(下略)²³⁾

고 하여, 政府의 方針을 찬양하고 있었고, 또 日本 YMCA 의 星野光多라는 사람은 『開拓者』 6卷 2號(1911년 2월 1일 刊)에, 「朝鮮의 運命 及 將來傳道敎化의 方針」이란 論文을 게재하여 “合邦은 神의 仁愛스러운 攝理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²⁴⁾ 組合敎會의 경우에는 渡瀨常吉가 合邦直後 『基督教世界』 1409號(1910년 9월 8일 刊)에, 「韓國併合과 傳國」라는 글을 게재하여,

(上略) 우리 組合敎會는 이미 兩個의 敎會를 京城과 平壤에 두고 있다. 그런데 그 獨立도 또한 가까운 時日內에 이취될 것 같다. 이들을 前驅로 하여 우리들은 바로 韓人傳道에 銳進할 機會에 到達케 되었다. 우리들은 若干 늦은 感이 있으나 오늘 그 것을 시작한다 해도 아직 늦지 않을 것이다. 願컨대 適當한 사람을 뽑아 韓人傳道를 開始해야 될 것이다. ……(下略)²⁵⁾

라고 하여, 速히 傳道師를 韓國에 派遣해야 된다고 主張하였다.

渡瀨는 1911년 6월 神戶敎會에서 辭職하고 自身이 직접 韓國에 건너와 傳道活動을 시작하였다. 물론 京城學堂의 弟子들을 巧妙히 利用하였다. 漢陽敎會를 설립할 때 京城學堂의 弟子 柳一宣을 執事로 앉혔던 것은 그 좋은 例라고 할 수 있다.²⁶⁾ 또 韓國인 名士를 懷柔해 보려고 이집 저집 찾아 다녔을 뿐만 아니라,²⁷⁾ 朝鮮總督府로부터 每年 6,000圓이란 巨額의 資金을 補助받아 敎會의 擴張을 꾀하였다.²⁸⁾

그러기에 1913년(大正 2) 8월 1일부터 5일間 서울에서 第1回 日本 組合敎會 朝鮮大會가 열렸을 때, 京畿道長官 梅垣直右가 開會式에 祝辭를 보내,

23) 小川圭治·池明觀 共編, 前掲書 pp. 104~105.

24) 同上書 pp. 327~335.

25) 同上書 pp. 165~168.

26) 松尾尊兌, 前掲 論文 p. 8.

27) 『續陰晴史』, 下卷(國史編纂委員會, 1960) 1913년 2월 19일, 3일 18일, 4일 18일, 1914년 6월 18일에 金允植을 訪問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28) 飯沼二郎·韓哲謙 共著 前掲書 p. 87; 松尾尊兌, 前掲 論文 pp. 9~11.

日本組合教會는……(中略) 언제나 健全한 主義 위에 서서 福音의 宣傳에 힘써 일찍부터 新同胞의 教化를 맡고 있음은 予가 衷心으로 敬意를 表하는바로서 오늘날 北쪽은 平安에서부터 南쪽은 全羅에까지 이르러 所屬 教會 三十有七 會員 四千에 達하게 되어 基礎가 어느정도 이취함에 이에 大會를 열어 內鮮人 모두가 將來의 發展을 劃함에 이른 것은 참으로 敬賀할 바로서……(下略)²⁹⁾

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는 組合教會가 總督府와 얼마나 密着되어 있었던가를 설명해 주는 좋은 證據다 할 수 있다.

日本人들이 조직한 京城基督教青年會(以下 略 京城 YMCA)의 주선으로 1911년 8월 24名의 한국 改新教會 代表들이 東京을 訪問하게 되었다.³⁰⁾ 이것 또한 懷柔策에서 나온 措置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周知하듯이, 당시 日本은 105人事件이라 하여 한국기독교 지도자를 多數 投獄하여 기독교를 彈壓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東京으로 24名을 데리고 간 것은 懷柔를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代表들은 別般 그 懷柔에 말려들지 않았다. 귀국한 뒤 京城 YMCA 任員들이 招待하여 日本에 대한 感想을 물었을 때 月南 李商在가 서슴치 않고,

나는 內地(日本을 가리킴)에 가서 物質의 文明이 進步한 것을 보고 感嘆하였다. 이는 내가 外國(미국을 가리킴)에 있을 때에도 느꼈던 바이나 外國에서는 여기에 添加하여 精神의 文明도 併行하고 있었다. 그러나 內地에서는 精神의 文明이 物質의 文明을 同伴하지 않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내가 깊이 사랑을 갖고 말하는 것이니 日本人은 物質의 文明

29) 飯沼二郎·韓哲巖 共著 前掲書 p. 89에 실려 있는 것을 再引用하였음. 이것은 渡瀨常吉 著述의 『朝鮮教化의 急務』(1913년 刊)에 실려 있다.

30) 24名의 이름을 列擧하면 아래와 같다.

張樂道, 孫承鏞, 崔炳憲, 申興雨, 李錫直, 玄楯, 金(全)德基, 玄錫七, 李枝盛, 金燦興, 李益模, 安昌鎬(以上 監理敎 牧師) 金鼎鏞, 梁甸伯, 朱孔三, 李元敏, 金千一, 韓錫晉, 李汝漢(以上 長老敎 牧師)

金麟, 李商在, 崔相浩, 金一善, 李源毓(以上 皇城基督教青年會 幹部)

이에 대해서는 小川圭治·池明觀 共編 前掲書 pp. 112~115 참조.

과 神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³¹⁾

고 말하였다는 것을 보아도 이를 立證해 준다. 그러니까 한국이 힘이 약하여 日本의 植民地가 되었을 망정 기독교信仰, 혹은 精神面에 있어서는 日本보다 優位에 있다고 말한 것이었다.

合邦이 되면서 日帝는 모든 한국의 言論機關을 閉鎖하였다. 특히 『大韓每日申報』의 경우에는 「大韓」이란 두 글자를 빼어버린 다음에 總督府의 機關紙로 바꾸었던 것이었다. 이 때문에 당분간 한국인의 소리(voice)를 전혀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사실 維新會 事件만해도 日帝는 一方的으로 維新會를 두둔하였던 것이어서 事件의 真相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이 事件은 元來 한국 YMCA에서 갖고 있던 돈을 日本 組合教會에서 奪取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데에서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朴殷植의 『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

彼對於教會 沮害萬端 而復有合併運動 日人基督教青年會幹事丹羽清次郎·渡瀨常吉與韓人青年會幹事金麟臺 運動合併 黜美人幹事吉利泰于中國 舊韓時代 以先帝之軫念及度支顧問英人栢卓安之周旋 就海關稅額中有每年一萬之寄附者 欲得此而屬之日人組合教會 以輿論之不許 而不果乃以此念憾 指青年會 爲排日黨 欲陷之罪 而奪之種設計 而幸無奇禍……(下略)³²⁾

라 하여, 서울의 日本 基督教 青年會의 幹事 丹羽清次郎, 組合教會 牧師 渡瀨常吉, 皇城基督教青年會의 幹事 金麟(正確히는 金麟)등이 美國人 幹事 「질레트」(吉利泰, 正確히는 吉禮泰)를 逐出하고 高宗皇帝의 好意와 度支部 顧問 「브라운」(栢卓安)의 알선 등으로 海關稅 중에서 每年 寄附金으로 1萬元이 青年會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던 것을 빼앗아 組合教會에 넘기려던 것이 뜻대로 안되자 한국 YMCA를 排日黨으로 몰았다는 것이었다. 合邦直後 中國에 亡命한 朴殷植은 國內에서 흘러나온 소식을 듣고 이렇게 적었던 것이었다.

31) 同上書 pp. 68~69.

32) 『朴殷植全書』 上卷(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75) 所收.

돈을 빼앗으려던 일에 대해서는 한국 YMCA의 總務였던 「질레트」의 秘密報告書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온다.

YMCA 직원 하나가 총독부로부터 기밀비를 타가지고 YMCA를 전복시킬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YMCA에 대한 반동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이사회에 결의로써 그를 파면했습니다. 이 사람과 다른 불평분자들은 소위 유신회라는 것을 조직했습니다. 이 회의 목적은 순전히 YMCA의 서양인 직원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아 재정권을 잡자는 것이었습니다.……(下略)³³⁾

여기서 YMCA 직원 하나란 副總務 金麟을 가리킨다. 그가 기독교 信者가 된 것은 1900년대 前半期 監獄에서였다. 어떻게 해서 監獄에 들어가게 되었던지는 알 수 없으나 兪星濬, 李源兢, 李商在, 申興雨, 李承晚 등과 함께 收監되어 있을 때 信者가 되었고,³⁴⁾ 1906년 8월 YMCA의 韓國人 總務 金貞植이 在日本 한국 YMCA의 총무가 되어 日本으로 떠나자 1907년 副總務로 選出된 사람이었다.³⁵⁾

日本側에게 買收된 時期는 알 수 없으나 合邦뒤, 그러니까 1911년 8월 日本人들이 조직한 京城 YMCA의 주선으로 한국 改新敎代表 24名이 東京을 訪問하였을 때 그도 同行하였는데 이 時期에 買收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京城 YMCA의 總務 丹波清次郎이 한국 改新敎 代表들을 引率하였던 것이므로 그로부터 買收되었을 可能性이 크다.

丹波는 1890년 日本 YMCA 最初の 有給 幹事를 지냈고 1908년 7월 서울에 京城 YMCA가 창설되자 初代 總務로 한국에 派送된 사람이었다. 당시 京城 YMCA의 건물은 따로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한국 YMCA 建物안에 京城 YMCA 本部 事務室을 마련하려고 갖은 工作을 폈다. 그러나 「질레트」總務가 頑強히 拒絕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³⁶⁾ 그것은

33) 전택부, 前掲書 pp. 172~173.

34) 李能和, 『朝鮮基督教及外交史』(朝鮮基督教彰文社, 1928) pp. 203~204.

35) 전택부, 前掲書 p. 144.

36) 同上

合邦直後の 일이었다.

前述한바와 같이 한국 YMCA, 즉 皇城基督教青年會가 창립된 것은 1903년 10월이었다. 창립 이후 會員數는 해마다 增加하여 1913년에는 1,600餘名에 達하여 東洋에서도 손꼽히는 青年會가 되었다.³⁷⁾ 그리고 창립될 때부터 中國과 香港의 YMCA와는 強한 紐帶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中國과 香港의 YMCA와 같은 全體委員會(General Committee of China, Korea and Hong Kong)에 屬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日本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어 不滿이 컸다.³⁸⁾

合邦直後 日本側은 多角度로 손을 뻗었다. 우선 YMCA 국제위원회의 總務「모트」(John R. Mott)와 접촉하여 그를 쉽게 설득시켰다. 그는 1911년 9월 한국의 YMCA를 ‘中國·韓國 및 香港 YMCA 전체위원회’에서 탈퇴시키는 문제를 決定토록 「外國委員會」(Foreign Committee)라는 것을 설치하여 特別委員會를 위촉하는 동시에 “한국 YMCA 理事會를 한국인, 西洋人, 日本人 各各 3분의 1씩으로 구성할 수 있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이다”라는 見解까지 피력하였다.³⁹⁾

한편 日本 YMCA의 「피셔」(G.M. Fisher)와 「히바드」(C. V. Hibbard)의 제안에 따라 中國 YMCA의 總務「브로크만」(F.S. Brockman)도 1911년 11월 이 문제를 中國 YMCA 全國大會에 회부하여 한국 YMCA를 中國, 香港전체위원회에서 脫退시켜 日本 YMCA 산하에 들어가게 하는 決定을 내렸다. 이 決定을 막기위해 한국 YMCA에서는 「질레트」總務, 金奎植, 申興雨 委員 등을 中國에 派遣하였으나 虛事로 끝나 마침내 한국 YMCA는 中國 YMCA와의 관계를 끊게 되었다.⁴⁰⁾

이에 따라 한국 YMCA는 憲法과 會員規則 등을 고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질레트」總務는 말한 것도 없고 「저다인」(J.L. Gerdine)會

37) 小川圭治·池明觀 共編 前掲書, p. 194.

38) 전택부, 前掲書 p. 144.

39) 同上書 p. 178.

40) 同上.

長과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1859~1616)委員 등은 한국 YMCA가 日本 YMCA의 산하에 들어가는 것을 反對하였다.⁴¹⁾

日本은 困窮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대로 좌절하지 않고 이번에는 한국인을 利用하려는 計劃을 세웠다. 그리하여 金麟·史一煥·柳一宜 등을 買收하여 維新會를 조직케 하고 史一煥을 그 會長으로 앉히었다⁴²⁾ 그 會를 조직케 한 時期는 正確히 알 수 없으나 1912년 末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그것은 1913년 初부터 金麟 등이 活動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⁴³⁾

1913년 1월 20일 維新會 會長 史一煥의 名義로 建議案, 그리고 새 青年會憲法와 會員規則을 한국 YMCA에 提出함과 同時에 이를 世上에 公表하였다. 史一煥은 160餘名 維新會 會員의 代表라고 떠들어 냈다.⁴⁴⁾ 總督府 機關紙 『每日申報』는 1월 28일 字부터 5월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社說과 記事를 게재하여 維新會의 活動을 大的으로 선전하였다. 다음과 같은 1월 28일 字 「青年會의 大改革」이란 記事를 보아도 얼마나 한국 YMCA를 헐뜯고 維新會를 鼓舞하고 있었던가를 엿볼 수 있다.

(上略)然이나 併合以來로 一般朝鮮人間에 覺醒이 起호야 從前과 如히 外國人의 酷使에 甘受치 안코자호는 氣風이 現出호야는디 此嘉尙호는 氣風은 比較的 知識이 富호고 元氣가 有호는 青年會員間에 顯著히 勃起호며 其結果로 曩者 彼等은 同會가 從來 上海基督教支那青年會와 聯絡호야 此에 隸屬호는 狀態에 在호을 改호고 獨立케 호며 同時에 從來 皇城青年會의 名稱을 有호을 時勢의 轉移에 伴호야 皇城二字를 除去호에 可호다고 運動을 起호야 幹部를 移動케 호야 成功호고 同會를 上海母會로부터 獨立分離호는 同時에 朝鮮中央基督青年會라 改稱호에 至호야는디 會員等은 猶未滿足호야 從來 同會에 憲法와 規則도 有치 안호고 米國役員의 指導下에 在호을 改호고 新히 憲法規則을 制定호야 幹部의 役員을 悉히 朝鮮人으로써 組織호고 米國役員을 顧問의 位置에 置호고 會의 實權을 朝鮮人의 手에 歸호기로 提議호야 近日 改革案을 作호야 憲法規則의 草案과 共히 此를 建議호다는디 此目

41) 小川圭治·池明觀 共編, 前掲書 pp. 193~194.

42) 『每日申報』 1913년 2월 1일 字 「革新派의 建議案」 참조.

43) 小川圭治·池明觀 共編, 前掲書 p. 194.

44) 『每日申報』 1913년 2월 9일 字 「青年會의 革新概」 참조.

의을 達하야 史一煥 其他 百六十餘名의 有力한 會員을 維新會라하는 것을 組織하고 目下 熱心으로 運動中이라 하며 且 彼等은 此目的으로 運動中이라하며 且 彼等은 此目的을 達한 後에는 東京 日本基督教青年會와 氣脈을 通하고 互相 提携하야 朝鮮青年의 啓發에 努力을 覺悟라하니 彼等의 運動成功은 朝鮮人의 利益을 希望하는 一般人의 願祈하는바라더라.

結局 維新會는 한국 YMCA 로 하여금 中國·香港의 YMCA 와의 關係를 끊고 日本 YMCA 의 산하에 들어가게 하여 朝鮮基督教青年會라는 이름으로 고치고, 또 미국 宣教師 中心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YMCA 를 한국인에게 그 운영권을 돌리게 하려는 改革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었다.

당시 YMCA 의 운영을 지도하던 司事部의 委員은 14 名이었는데 (總務와 副總務 包含) 그 중 3 名만 한국인이고 나머지 11 名이 미국인 「질레트」 總務 등 外國人이었다.⁴⁵⁾ 그러니까 外國人이 차지하고 있던 11 名의 司事部 委員을 한국인으로 代置하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維新會에서는 自己들과 같은 親日分子로 채우려는 속셈이었다.

『每日申報』는 1월 30일 字에 「基督青年會」란 社說과 함께 維新會에서 作成하여 한국 YMCA 에 제출한 青年會의 새 憲法과 會員規則을 「鍾路青年會改革狀況一斑」이란 이름으로 一面에 크게 게재하였다. 社說은 앞에서 紹介한 1월 28일 字 記事와 大同小異한 것이었다.

中國 基督教青年會와의 關係를 끊고 日本 基督教青年會와 提携하려는 것, 또 時勢의 推移를 감안하여 皇城基督教青年會의 「皇城」 두 字를 떼어 버리고 朝鮮中央基督教青年會로 改稱하려는 것은 훌륭한 處事라고 칭찬하였던 것이었다.

다음날 1월 31일 字에는 「宗教之人」이란 項目을 設定하여 親日的 言辭를 서슴치 않고 發言한 金麟의 이야기를, 2월 1일 字에는 維新會의 建議案을 게재하였다. 또 2월 9일 字에는 「青年會의 革新激」이란 記事를 실어 非理·不法을 일삼는 미국인 職員을 逐出하라고 외쳤고, 2월 16일 字에는

45) 小川圭治·池明觀 共編, 前掲書, p. 174.

「吉禮泰氏의 回答」이란 제목으로 維新會에서 한국 YMCA 를 日本 YMCA 에 加入시켜야 된다고 建議한데에 對해 「질레트」가 1903년에 採擇한 憲法을 檢討코자 職員에게 번역을 依賴하였다는 答을 보내온 것에 대해 온 당치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2월 19일 字에는 「基督青年의 和解」라는 社說을 게재하여 維新會의 主張을 一方的으로 옳다고 한 다음에,

(上略)大抵 某宗教이던지 何國에서 起因함과 何人에게 傳受함을 不論하고 其國에 在하는 不可不 其人의 人格을 享有케 할지어늘 彼와 如히 國體 如何로 不思想和 人格 如何도 不問하고 傳히 自由의 習尙을 實行해야 朝鮮人은 賤遇가 滋甚하니 數年以前에는 如何히 形便으로 此에 至하였는지 不知거니와 今日과 如히 文明이 日上해야 朝鮮人의 見識도 一大變動이 有커니 엇지 改革運動이 不起호리오. 理事者 側에서도 既히 往非를 自覺해야 專橫的의 行動을 改하고 和解를 求커니 青年會도 此機를 利用해야 外人 理事者를 引退하고 朝鮮人 青年會를 朝鮮人의 主張함이 可하다 호노라.

고 하여, 外國人 理事를 逐出하고 韓國인으로 代置하라고 하였다.

때 마침 YMCA 國際委員會 총무 「모트」가 日本을 訪問하게 되었다. 앞에서 본바대로 日本은 이미 「모트」를 회유한바 있으므로 그의 訪日에 큰 期待를 걸었다. 그러면서도 組合教會에서 發刊하던 雜誌 『基督教世界』 1553號 (1913년 2월 20일 刊)에는 다음과 같은 投書를 게재하였다.

本社は 다음의 投書를 接하였음에 全文을 게재하여 當局者의 一考를 催促한다. 本日 入手의 基督教世界에 依據하여 朝鮮에 있는 青年會의 眞相을 살피게 되었다. 그러나 米國人 總務 중에 朝鮮人의 權利를 妨碍함이 그처럼 甚함에 있어서는 實로 이를 傍觀할 수 없다. 여기서 今般 「모트」氏의 來游를 好機로 삼아 그와 같은 總務를 斷然코 解任함은 전적으로 神의 뜻이라 생각한다. 「모트」氏로서 果然이 일을 決行할 수 있다면 이로 因해 朝鮮의 平和는 말할 것도 없고 日本人의 美國에 對한 感情도 크게 融和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모트」氏를 이번에 東洋에 보낸 趣旨과 부합될 수 있을 것이고 實로 極東의 基督教界에 미치는 祝福도 클 것으로 생각된다. 바라건대 朝鮮의 同胞를 사랑하면서 義依心을 갖고 있는 實紙를 통해 吾人의 이 希望이 「모트」氏 其他 關係있는 米國人에게 알려주도록 간절히

바란다. 恐懼頓首.

大正二年 二月十三日 靈界不偏不黨生⁴⁶⁾

여기서 大正 2年이란 1913년이다. 그러니까 「모트」로 하여금 한국 YMCA 미국인 總務 「질레트」를 解任토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었다. 靈界의 不偏不黨生이 이 投書를 쓴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帝國主義 앞잡이 들이 이와같은 협박에 가까운 글을 쓰면서도 어떻게 不偏不黨生이란 이름을 내 걸었는지?

그러는 동안 日本側은 한국 YMCA 幹部에 대해 위협을 가하는 한편으로 유혹의 손을 뻗치면서 교란作戰을 폈다. 그 한 두가지의 예를 든다면, 「질레트」總務가 그의 秘密報告書에서 말하기를

(上略) 그 뒤 곧 유신회의 회원 6,7명이 내 사무실에 몰려와 나를 끌어 내었으며, 만약 내가 화가 나서 그들에게 손을 대면 나를 경찰에 고발하여 나중에는 국외로 추방하려는 흉계였습니다. 5일간이나 그들(그중 2명은 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사람)은 온종일 내 사무실에 와 살면서 별의별 욕설을 다 퍼부었으며, 내가 그들에게 손을 대게끔 유도했습니다. 그들은 내 만년필을 뺏고 꺾기도 하며 내 책을 찢기도 하면서 업무 방해를 자행했습니다. 일대 일로 싸운다면 그자들은 상대가 안되는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은 그중 하나를 문 쪽으로 밀었더니 그는 일부러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크게 다친 것처럼 엄살을 부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사전에 꾸민 연극이었습니다. 그 자는 의사를 불러오고 경찰을 불러오라고 말했지만 나의 미국인 친구는 처음부터 그 광경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강경하게 반증했기 때문에 그자는 경찰에 고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틀날 아침 자 신문에는 나와 내 친구가 그자를 때려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지금 관립병원에 입원 가료중에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中略) 이러한 폭력행위가 시작된지 5일째 되는 날 총독부 관리들이 Y(青年會)를 찾아왔습니다. 그네들은 회장과 질레트 씨는 사임시켜야 한다는 유신회의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下略)⁴⁷⁾

라고 하여, 想像할 수 없는 行動을 「질레트」에게 저질렀던 것이었다. 이

46) 同上.

47) 전택부, 前揭書, p.173.

상의 引用文을 보아도 維新會 會員들이 日本경찰과 짜고 얼마나 악랄한 行動을 하였던가를 알 수 있다.

教育部 委員長이었던 李商在의 경우에는 돈으로 買收하려 하였으나 끝내 拒絕을 당하고 말았다.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逸話가 傳해지고 있다.

※ 金錢준다는 것이 나를 죽으라는 말

皇城基督青年會의 皇城 二字를 써서 버리고 西洋人 教師를 쫓고 日本人들과 內通 하라고 其時 總督府 宇佐美(勝夫) 內務部長官을 背景으로하고 維新을 顛覆코져 熱烈한 反對의 團體가 있었다. 總督府에서 先生을 請하여 四萬元을 줄터이니 이것을 가지고 歸鄉하야 餘年을 平安하게 지내기를 勸告하니 先生은 怒氣騰騰하야 이돈으로 쌍을 사라는 것은 나를 이자리에서 죽으라는 말이니 이돈을 받을 내가 아니라고 對答하고 拒絕하면서 다시 이러셔서 나는 하날로부터 태여 나기를 平安하게 一生을 맞칠 運命을 타고 나지 못했다고 말하고 오셨다.⁴⁸⁾

당시 4萬元이란 돈은 엄청나게 큰 額數였다. 몇 萬坪의 땅도 살수 있고, 큰 기와집 몇 채도 살수 있는 돈이었다. 그러나 가난한 生活을 하면서도 李商在는 이를 斷然코 거절하였던 것이었다.

1913年 2월 21일 한국 YMCA 理事會에서는 維新會를 조직한 副總務 金麟을 罷免措置하였다. 自體內的 숙청이 무엇보다 더 重要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卽刻 維新會 會長 史一煥이 YMCA 國際委員會 총무 「모트」에게 이 문제를 처리 해달라고 書翰을 보냈다. 그러자 한국 YMCA 會員들이 2월 27일에 緊急會員大會를 열어 理事會에서 決定한 金麟의 罷免措置를 支持한다는 決議案을 通過시켰다.⁴⁹⁾ 이 때문에 事件은 복잡하게 전개되어 갔다. 日本側은 維新會조직으로 쉽게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으나, 이처럼 한국 YMCA에서 완강히 對抗하자 總督府 기관지 『每日申報』를 통해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이를테면, 3월 4일 字「青年會의 紛擾真相」이란 제목하에

48) 金道東, 『月南 李商在先生實記』(月南李先生實記出版所, 1927) p. 69.

49) 전택부, 前揭書, p. 174.

京城鐘路의 朝鮮基督教青年會의 紛擾는 役員等이 改革派 意見을 容納한 旨을 發表함에 因하여 鎮靜의 模樣이 有하나 其實은 役員等이 一時를 糊塗하기 爲한 手段이오 約束과 如히 委員을 選하여 改革派에 陳謝케 할 事를 爲치안이 홀뿐 아니라 各種의 陰險한 手段을 執하여 改革派의 運動을 阻害코자함으로 紛擾의 內容은 以前보다 倍加하여 事態가 頗히 容易치 안이 라다 云하며 其中에도 改革派가 役員等의 處置에 對하여 憤慨함은 一兩日 前 役員等이 突然 會員總會를 開하고 自己에게 便宜한 議決을 爲하였다는디 改革派의 所言은 總務 吉禮泰, 會長 장구인(저다인) 等의 諸氏는 過日來 隱然히 京城의 鮮人 各教會에 屬한 基督教徒間에 會員을 募集하여 此等 一時에 募集한 會員을 會集하여 改革派에 屬한 會員에게도 何等 通知를 爲치 안이 하고 突然 總會를 期하여 自己에게 反對한 總務 金麟氏의 免職을 議決케 하고 且 改革派의 意見을 皆 排斥하였더라.

고 하여, 한국 YMCA의 處事는 잘못이라고 비난하였던 것이다.

당시의 維新會 會員은 總督府에서 주는 工作金이나 타먹고 무슨 일이던 도말아 하던 不良輩集團이었다. 따라서 한국 YMCA에서는 혹시나 이들이 YMCA 建物안에 들어와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하여 당분간 正門을 굳게 닫아버렸다. 이에 대해 『每日申報』는 3월 11일 字에 「青年會의 改革運動」이란 제목의 記事를 실어 또 다시 공격을 하였다. 즉,

朝鮮中央基敎革新會의 改革을 標榜한 維新會는 贊成者가 日로 增加하여 加盟者가 既히 三百名에 達함으로 會員等은 其趣旨을 公衆에게 告白하기 爲하여 再昨日 午後에 演說會를 鐘路 同會館에 開하였는디 傍聽키 爲하여 集會한 者가 數百名이 되나 總務 지렛드氏는 何故인지 會館을 使用치 안이 하고 固히 門扉를 鎖하여 會員 等을 入치 못하게 함은 彼等은 元來 正正堂堂의 議論으로서 爭코져 主義한 者인즉 強히 入館치 안이 하고 演說會를 中止하고 平穩히 散會하였는디 지렛드氏의 專斷行爲에 對하여 嚴重한 詰問을 試함의 覺悟이라 云云하더라.

고 하여, 維新會 會員들이 YMCA에서 演說會를 열려고 하였더니 「질레트」總務가 門을 잠그었던 것이므로 엄중히 抗議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3일 뒤인 3월 14일 字 『每日申報』에 한국 YMCA 「저다인」 會長, 「질레트」總務, 司事部の 「언더우드」, 그리고 2,3名의 韓國人 委員 앞으로 金麟이 쓴 「青年會革新에 就하여」라는 寄書를 게재하였다. 이 寄書

는 『每日申報』 첫 페이지 全面에 걸치는 長文이었다. 그 內容은 要컨대 維新會란 近者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10數년 전에 세워졌고, 自己는 8년 전에 總務로 任命되어 열심히 일해 왔다는 것, 朝鮮은 이미 日本帝國의 一部가 된 以上 日鮮人 間의 融合·親和를 위해 한국 YMCA는 日本 YMCA와 紐帶를 가져야 된다는 것, 한국 YMCA는 維新會에서 建議한 것을 速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트」가 東京에 체류하고 있을 때 日本 改新教會는 그에게 接近하여 다시 회유를 하였다. 「모트」는 日本側의 要求를 받아들여 한국 YMCA 任員들을 說得하기 위해 3월 25일 서울을 訪問하게 되었다. 이 날 維新會 會長 史一煥은 卽刻 다음과 같은 書翰을 보냈다.

최근에 YMCA 실무자가 법대로 헌정개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이때 까지 우리가 애쓴 결과이며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초안 중에 “재단 이사는 국제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또한 “재단 이사와 일반 이사 사이에 현장 해석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아니할 때에는 국제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는 헌장 조항은 우리 YMCA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YMCA 국제위원회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헌장 조항은 YMCA 본질상 부당한 처사이며 YMCA의 정상적이며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中略) 우리는 이미 귀하에게 보낸 서한 중에서 한국 YMCA가 일본 YMCA 연합회 산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YMCA 실무자들은 이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질질 끌고 있는지 그들의 직무 태만에 대하여 우리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2월 21일자 회장 저다인(J.L. Gardine) 목사의 명의로 공포된 한인 총무 김인(金麟)씨의 파면 결의와 동 27일에 회집된 긴급 회원대회의 지지 결의는 크리스찬으로서서는 참아 할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⁵⁰⁾

그러니까 한국 YMCA를 早速히 日本 YMCA에 예속시키고 한국YMCA 會長「저다인」의 名義로된 副總務 金麟의 파면 決議, 그리고 이를 緊急會 員大會에서 支持 決議한 것은 不法이라는 것이었다.

끈질긴 總督府의 壓迫, 거기에 「모트」까지 懷柔를 당하였으니 한국

YMCA로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모트」의 요청대로 한국 YMCA는 代表를 選出하여 東京에 派遣하게 되었다. 「언더우드」, 「에비슨」, 李商在, 南宮 櫨, 申興雨 5인이 東京에 가서 4월 10일부터 「모트」의 주선 下에 日本側 代表 井深梶之助, 元田作之助, 新渡邊稻造, 笹尾條太郎, 丹波清次郎 등과 會見하였다.⁵¹⁾

이 동안에 日本 改新教會는 「모트」에게 빨리 決定을 내리도록 督促을 하였다. 『新人』 14卷 4號 (1913년 4월 刊)에 게재된 다음과 같은 「覺醒된 朝鮮人 基督教 青年會」란 論說을 통해서도 이 事實을 알 수 있다. 『新人』은 組合教會의 牧師 海老名 彈正가 創刊한 잡지였다.

朝鮮은 元來 大陸의 一部로서, 또 그 뒤에 支那에 附屬되었던 까닭에 基督教傳道나 基督教青年會는 當初부터 支那와 깊은 關係를 맺고 있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時代의 變遷은 마침내 日本帝國의 一部가 되었으므로 傳道의 方策도 一變되어 야함은 當然한 것으로 吾人は 일찍부터 本誌 紙上에서 이를 論하였다. 그런데 近者에 朝鮮人의 青年會는 驟然 從來의 關係를 一掃하여 獨立하겠다는 計劃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이는 吾人의 賞贊을 받을 만한 壯舉가 아니고 무엇이나.……(中略) 이는 日鮮人의 融合을 企圖함에 있어서도 가장 바람직한 方法임은 누구나 疑心할 수 없는 것이다. 日鮮人이 結局엔 融合되어야 할 일은 政治上으로 보나 社會上으로 보나, 또는 宗教·道德上으로 보아도 가장 바람직한 것이므로 크리스찬은 모름지기 率先 이를 實行해야 된다.……(中略) 「모트」 博士의 炯眼은 반드시 이와같은 것을 보게 될 것이고, 從來의 關係를 一掃하여 여기에 新面目이 開展될 것을 吾人は 切望하여 맞이하는 바이다.⁵²⁾

韓日間の 會談은 3일째 되는 4월 12일 合議에 도달하여 署名한 뒤 헤어졌다.⁵³⁾ 여기에서 皇城基督教青年會는 朝鮮中央基督教青年會로 改稱되고, 日本 YMCA 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國際關係에 있어서 “한국 YMCA는 日本 YMCA 동맹과 미국기독교청년회 연맹과 미국학생청년회(World's Student Christian Federation)로 더불어 연락한다”로 낙착

51) 小川圭治·池明觀 共編, 前掲書, pp. 69~70, 195.

52) 同上書, p. 264.

53) 전택부, 前掲書, p. 180에는 당시 合議를 본 6個 條項이 실려있다.

되었다. 따라서 한국 YMCA 는 애초 維新會가 主張했던 것처럼 完全히 日本 YMCA 에 屈服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자 維新會는 憲章을 根本적으로 뜯어 고치고 理事會 全員을 새로 選舉해야 하며, 理事는 國際 委員會의 認准을 받아야 된다는 條項을 삭제하라고 떠들어댔다.

할 수 없이 總會에서 投票로 決定하게 되었다. 아슬 아슬한 고비도 있기는 하였으나, 總會에서는 「언더우드」, 「에비슨」, 南宮 櫺, 申興雨 등 미국인, 한국인 12名이 理事로 選出되었다. 그러니까 日本人과 한국인을 理事로 하자는 維新會 側의 主張이나, 한국인 4名, 西洋人 4名, 日本人 4名으로 理事會를 구성하자는 「모트」의 折衝案도 無視되었던 것이었다.⁵⁴⁾

이처럼 한국 YMCA 는 日本 YMCA 산하에 들어가면서도 若干의 自主性을 獲得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總督府의 壓力은 드세어 오랫동안 한국인 편에 서서 싸웠던 「질레트」總務가 1913년 6월에 中國으로 追放되었고,⁵⁵⁾ 「저다인」會長 또한 거의 같은 時期에 心身 모두 지쳐 귀국하게 된 것은,⁵⁶⁾ 한국 YMCA 로서는 못내 아쉬운 일이었다.

1914년 2월에 開催된 한국 YMCA 聯合會 組織總會에서는 前年에 日本 YMCA 와 合議한 事項을 통과시켰고, 그 해 7월 日本 YMCA 同盟總會에 代表를 派遣하였다. 日本 YMCA 또한 1916년 7월 23일에 열린 한국 YMCA 總會에 渡邊 暢, 丹羽清次郎, 松本正寬 3名을 名譽理事로 派送하였던 것이었다.⁵⁷⁾ 이는 實質적으로 한국 YMCA 가 日本 YMCA 산하에 들어갔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3·1運動뒤에는 事情이 달라졌다. 이 運動으로 韓國民은 獨立意志를 國內外에 뽐낸 것이므로 日本 YMCA 側도 이를 無視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22년 5월 日本 東京에서 韓·日 YMCA 代表가 YMCA 국제위원회

54) 同上書, pp. 181~182.

55) 同上書, pp. 168~169.

56) 「저다인」은 1913년 5월 29일 休息을 取하기 위해 瑞西로 떠났으니, 이에 대해서는 *Korean Mission Field*, Vol. 8, 1913년 7월 號를 참조할 것.

57) 건택부, 前揭書, p. 208.

總務「모트」의 주선아래 다시 만나 會議를 하여 前記 1913년 4월에 會議된 事項을 廢棄키로하고, 한국 YMCA가 獨自的으로 世界聯盟에 加入토록 決定을 내렸다. 이것은 1924년 7월 스위스의 首都「제네바」에서 열린 YMCA 世界聯盟會議에서도 통과되었다.⁵⁸⁾

앞에서도 본바와 같이, 한국 YMCA는 創設 當時 「중국·한국·香港 YMCA全體委員會」(General Committee of China, Korea and Hong Kong YMCAs)에 所屬되었고, 「YMCA 世界聯盟」(World Alliance of YMCAs)에는 加入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이때에 世界聯盟에 加入됨에 이르렀던 것이었다. 維新會의 策動으로 日本산하에 들어갔던 YMCA가 世界聯盟에 加入케된 것은 3·1運動 이후 크게 바뀐 社會 분위기도 作用하였을지 모르나 그 보다 더 重要한 要因으로서 是는 YMCA 會員들이 尙 團結된 힘을 誘示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⁵⁹⁾

IV. 結 語

以上으로 維新會 事件을 中心으로 日本의 改新教會의 한국 浸透를 살펴 보았다. 사실 日本 改新教會는 帝國主義의 앞잡이로 總督府와 結托하고 한국인 不平, 不良分子를 糾合하여 維新會를 設립, 이들을 總동하여 한국 YMCA를 日本 YMCA에 예속시켰던 것이었다.

近者에 日本學界에서 組合教會의 한국 浸透를 批判함과 同時에 3·1 운동 이후 柏木義円 牧師 등의 批判勢力의 등장을 크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⁶⁰⁾ 그러나 그 批判勢力을 너무 지나치게 추켜올리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물론 批判勢力이 등장하였음을 否認하려는 것은 아니나 그들의 등

58) 同上書, pp. 281~287.

59) 그러나 中日戰爭이후인 1938년 한국 YMCA는 日帝의 強壓으로 세계연맹에서 脫退하고 日本 YMCA 산하에 다시 들어갔으며, 또 몇 사람의 日本人이 한국 YMCA에 이사로 들어왔다. 이에 대해서는 同上書, pp. 427~430 참조.

60) 註 (1), (2), (3) 참조.

장을 強調함으로써 日本 改新教會의 韓國 浸透를 糊塗하려는 것 같은 印象을 받게됨은 筆者의 過敏한 탓일까? 批判勢力이 維新會 事件을 전혀 舉論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그들의 思想에 限界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或者는 維新會 事件을 매우 사소한 문제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合邦이후 韓國인의 政治·社會活動이 모두 禁止되었을 때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었던 唯一한 場所가 YMCA 였다고 한다면 YMCA를 彈壓하려던 이 事件은 決코 작은 事件이라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事件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韓國 YMCA 會員들의 自主的인 行動이다. 우리들은 이를 높히 評價해야 될 것이다.

(1987. 3. 10.)